

## 팬티 스타킹 품질표시에 대한 국가별 비교

권 수 애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전공 교수)

최 중 명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팬티스타킹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팬티스타킹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판되고 있는 팬티스타킹의 섬유소재, 치수규격, 취급표시 및 기능성 등에 대한 품질표시 사항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팬티스타킹의 조성섬유와 혼용을 표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미국, 대만 및 영국은 섬유명과 혼용율을 %로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섬유명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팬티스타킹의 부위별로 섬유명과 혼용율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 2) 팬티스타킹의 치수기준 및 규격을 살펴보면, 미국은 신장과 체중을, 영국과 일본 및 대만은 신장과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규격으로 시판되지만, 한국은 신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신체치수에 관계없이 한가지 규격(Free)이었다. 또한 팬티스타킹의 치수표시는 그림, 표, 숫자, 기호 등을 사용하였는데 표시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여 미국은 그림, 영국은 그림과 표, 일본과 대만은 숫자로 표시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공통적으로 Free라고 표시하였다.
- 3) 팬티스타킹의 취급표시 기호와 이에 관련된 부가설명은 국가별 차이를 보여 미국, 영국, 일본은 취급방법에 대하여 표시기호와 함께 부가설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대만과 한국은 표시기호만 나타내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 한국은 회사에 따라 취급방법에 대한 표시기호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통일된 표시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 4) 팬티스타킹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 매우 다양한 기능성 스타킹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미국과 영국의 경우 스타킹의 외관과 쾌적함에 초점을 둔 기능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항균·방취나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가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별히 기능성 측면을 강조한 팬티스타킹은 거의 없었다.